

# 잊혀선 안 될 4·3 유적 모바일 지도로 찾는다

4·3연구소 73주년 4·3맞아 카카오톡에 29곳 유적 안내 무명천 할머니 삶터 등 표시 다음 갤러리에 온라인 전시 과거와 현재 모습들 한눈에



희사한 봄꽃길 따라 4·3의 아픈 역사따라, 제주4·3유적

손바닥 안 스마트폰으로 제주4·3유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제주4·3연구소(이사장 이규배, 소장 허영선)는 4·3 제73주년을 맞아 카카오톡과 다음(Daum) 갤러리 등 온라인을 통해 4·3유적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18년부터 4·3유적을 조사하고 있는 4·3연구소가 4·3에 대한 관심과 4·3의 생생한 현장인 4·3유적에 대한 대중적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카카

오에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이뤄졌다. 기억해야 할 4·3유적지가 많은데 정작 찾아가는 길을 모르거나 정보를 알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에는 3일 기준으로 주요 4·3유적 29곳이 등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10곳을 묶은 4·3유적 콘텐츠 테마 지도도 별도로 제작했다. 4·3

테마 지도에는 4·3의 도화선이 된 1947년 3·1사건 현장인 관덕정 앞 광장, 4·3 이후 제주인의 삶이 어땠는지 이해할 수 있는 무명천 할머니 삶터 등이 소개됐다. 그동안 국내 포털 지도 서비스는 제주4·3평화공원, 너븐숭이 4·3기념관 등 추모시설, 무등이웃, 첫알오름 탄약고터 등 극히 일부 4·3유적에 한정된 상태였다.

다음 갤러리에는 '희사한 봄꽃길 따라 4·3의 아픈 역사 따라, 제주4·3 유적'이란 제목으로 온라인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4·3 발발에서 초토화 작전 시기까지 4·3의 전개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관련 4·3유적을 시기별, 주제별로 정리했다. 4·3유적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1948년 당시 항공 사진 등 과거의 모습을 담은 장면도 함께 볼 수 있다.

4·3연구소는 이번 온라인 지도 등이 4·3을 이해하고 관련 현장을 답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소 측은 "4·3유적 등록은 처음 하는 시도여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랐으나 잊혀져서는 안 될 중요한 역사의 현장이라고 생각해 이 작업을 추진했다"면서 "4·3유적은 현재 제주 전역에 걸쳐 수백 곳이 존재하는데 이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 또한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선화기자

# 도립예술단 합동 '카르미나 부라나'

올해로 세 번째 협업 무대 7월 3일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관악단 연주 맡아 제주교향악단은 축하 공연

립예술단은 극과 조화를 이루는 색다른 시도의 안무와 영상을 가미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종합예술극으로 '카르미나 부라나'를 펼칠 예정이라고 했다.

2021년 5개 제주도립예술단이 합동 공연으로 택한 작품은 칼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다. 공연 무대는 서귀포로 정해졌다. 제주도는 7월 3일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제3회 제주도립예술단 합동공연 '카르미나 부라나'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립서귀포관악단, 도립서귀포합창단, 도립무용단, 도립제주교향악단 등 5개 예술단의 조례상 통합을 기념하고 예술단 간 협업으로 도민에게 수준 높은 대규모 공연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부터 합동공연을 개최해 왔다. 지난해에는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참여한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팔리아치' 두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 공연 작품인 '카르미나 부라나'는 25곡으로 구성된 칸타타다. 도립예술단은 극과 조화를 이루는 색다른 시도의 안무와 영상을 가미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종합예술극으로 '카르미나 부라나'를 펼칠 예정이라고 했다. 서귀포관악단이 반주를 맡고 제주합창단과 서귀포합창단으로 구성된 100명의 대규모 합창단이 무대에 오른다. 솔리스트로 소프라노 박현주, 테너 이재욱, 바리톤 엄경목이 출연한다. 도립무용단의 감각적 안무도 만날 수 있다. 서귀포관악단의 이동호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고 서울예술단 예술감독이자 한국연출가 협회의 2020년 '올해의 연출가상'을 수상한 권호성씨가 연출을 맡는다. 5월 27일에는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합동 공연 제작과정 공유 등이 이뤄지는 쇼케이스가 예정됐다.

이와 함께 편성상 서귀포관악단과 한 무대에 오르기 어려운 제주교향악단은 합동 공연 1주일 전인 6월 26일 제주아트센터에서 별도 축하공연을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취임한 김홍식의 지휘로 쇼스타코비치의 '축전서곡', 드보르작의 '교향곡 제7번' 등이 연주된다.

전선화기자 sunny@ihalla.com

# 제주교향악단 새 지휘자 취임 연주회

김홍식 지휘로 이달 15일 베토벤·시벨리우스 선곡

15회 정기연주회로 준비됐다. 김 지휘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탈리아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지휘과 과정을 마쳤다. 귀국 후 대구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부지휘자, 군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지냈다.

이날 공연 프로그램은 베토벤의 '피아노,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3중 협주곡 작품 56', 시벨리우스의



김홍식 지휘자

'교향곡 제2번'으로 구성됐다. 베토벤 협주곡은 당시 유행했던 피아노 3중주 편성에 관현악을 결합한 곡이다. 충남대 교수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선희와 첼리스트 이송희, 가천대 등에 출강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한기정이 협연을 맡는다. 시벨리우스 교향곡은 이탈리아 휴양지 라팔로 해안에서 창작된 작품으로 제주교향악단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담아 연주할 예정이다.

관람료는 무료. 코로나19 여파로 대극장 객석 일부만 개방해 25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입장권은 4월 2일부터 제주예술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현장을 찾지 못하는 제주도민들을 위해선 제주시청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가 이뤄진다. 문의 728-2776-7. 전선화기자

# 신진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발급 가능

규칙 등 개정 기준 신설 신진 창작준비금도 지원 온라인 활동도 실적 인정

이번 개정에서는 신진 예술인도 예술 활동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예술 경력 2년 이하의 신진 예술인은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을 경우 유효 기간이 2년인 예술활동증명을 받아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진 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자 3000명도 창작준비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면 창작준비금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6월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진 예술인도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과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예규)'의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온라인 예술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관련법이나 재단 관리주관기관의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예술 활동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경우, 공공기관 등이 지원하는 온라인 예술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온라인 예술 활동에 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적이 인정된다.

전선화기자

# 문화가 쏠리

## 아트페스타 10월 15~31일

제주시가 주최하는 '아트페스타인제주'가 10월 15~31일 산지천 갤러리, 탐라문화광장 등 산지천 일대에서 열린다.

제주국제아트페어&페스티벌의 뒤를 이어 올해 여섯 번째인 이번 축제 주제는 '내가 살아있음에... 산지열전(山地列傳)'으로 정해졌다. 평면, 입체, 영상미디어, 사진, 공예, 서예, 설치 미술 등 전문 작가 100여 명(제주 작가 6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어린이, 청소년 등 시민 300여 명이 참여하는 특별전시관도 운영된다.

## 아트센터 문화예술교육

제주아트센터가 4월 말부터 11월까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두 개 강좌를 무료로 운영한다.

개설 강좌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된 '관악기야 놀자', '제주 이주민합창단 평화의 소리'로 심화 과정으로 꾸러진다. 참가 신청은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제주아트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과정별 모집 인원은 25명 내외다. 제주아트센터는 2019년 전국 문화예술 교육 축제에서 청소년뮤지컬 프로그램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 컬트다소니 9명 회원전

제주 '컬트다소니' 회원 9명이 '일상'이란 이름으로 일곱 번째 회원전을 열고 있다.

이달 3~8일 문예회관 2전시실에서 이어지는 회원전에는 손바느질로 잇고 누비며 완성되는 핸드퀼트, 재봉틀을 이용한 머신퀼트, 프랑스자수를 활용한 작품 등 30여 가지를 선보이고 있다. 컬트다소니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만남도 외출도 자유롭지 못해 답답한 날들이었지만 바느질이란 좋은 벗이 있어 그 힘든 시간을 잊고 마음의 위안이 되었던 것 같다"고 했다.

## 한수폴도서관 4·3도서전

한수폴도서관은 4·3 제73주년을 맞아 '우리의 4·3이 따뜻한 봄으로 기억될 때까지'라는 주제로 4월 한 달 동안 관련 도서와 자료 전시를 진행한다.

이번 도서전에는 '무명천 할머니', '똥강이', '붉은 유채꽃' 등 어린이·청소년 추천도서 10권과 '순이삼촌', '지슬', '서른의 반격' 등 성인 추천도서 10권 등 총 20권이 전시된다. 도서관은 "전시 도서를 읽어보며 무고하게 희생된 도민들의 명복을 기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축 임**  
**(재) 신성여자고등학교동문회 장학재단 제5대 이사장**

**문 정 옥**

(재)신성여자고등학교동문회 장학재단 제5대 이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신성여자고등학교 제19회 동창 일동**

**축 임**

**제주어니소사이어티클럽 회장**

**이 철 수**  
(10회)

제주어니소사이어티클럽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서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문창용 외 동문일동

**축 선**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지부장**

**백 민 형**  
(대공갈비)

사)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시지부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처 가 일 동**

**축 상**

**제주시농협, 2020년도 전국 도시농·축협 역할지수 연발평가 최우수상 (1위)**

**제주시농협**

수상을 축하합니다. 고봉주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주시농협 퇴직동우회 회원 일동**